

‘영어는 성문, 수학은 정석’ 시절부터

참고서의 춘추전국시대까지

참고서의 역사로 살펴보는 한국의 교육백년지대계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모두 7번 변화했다. 1955년 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1997년 7차 교육과정까지. ‘암기’만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초창기 교육과정에서 이제는 논리력, 창의력은 물론 통합적 사고력을 갖추어야 하는 전인격적 교육과정으로 심도 깊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바뀌는 입시 제도는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시험 등 종류도 다양한 ‘입시지옥’을 치르면서 학생들의 공부 방식은 ‘그때 그때 달라요’가 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과서와 참고서가 있었다. 해마다 서울대의 수석 합격자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라고 말했지만 교과서를 보기 위해서 참고서를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네 교육 현실.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가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면 참고서가 바뀌었다. 바뀐 교과서를 ‘해독’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서가 필요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참고서 시장이 따라 들쭉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참고서의 변천사는 대한민국 교육의 변천사와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서가 보여주는 ‘한국의 교육백년지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본다.

1950~1960년대, 단순했던 초창기 참고서 시장

초창기 참고서 시장은 단순했다. 참고서 자체가 몇 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입시 정책이 정교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보는 참고서들도 다양해지게 된 것이다.

우선, 1950년대는 스타 영어 강사 안현필 씨의 《영어기초 확립》이 참고서 시장의 베스트셀러였다. 두꺼운 노란색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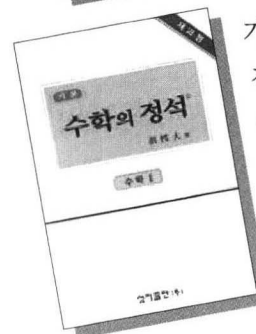
로 된 이 책은 별다른 영어 참고서가 없던 당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안 씨는 이후 중·고생용 《영어실력기초》와 수험생 독해서 《영어기초오력일체》를 출간하며 많은 인기를 누렸다. 수학 역시

1950~1960년대 학원가를 주름잡았던, 현 삼보 컴퓨터 명예회장 이용태 씨가 ‘이지흠’이란 필명으로 출간한 《수학의 강의》(입시수학의 분석연구)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참고서는 1970년대처럼 ‘선봉적인 인기를 끌’ 정도는 아니었다. 입시전쟁은 여유가 있는 학생들만의 얘기였고, 아직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시급했기 때문이다.



‘영어는 성문, 수학은 정석’ 공식 탄생한 1970년대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사정은 좀 달라졌다.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으로 귀결된다는 믿음이 ‘입시’의 위상을 새롭게 각인시킨 것이다. 특히 이 기세를 타고 《성문 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와 《수학의 정석》은 불멸의 스테디셀러가 되어



아직까지 ‘영어는 성문, 수학은 정석’이라는 말이 참고서 시장의 공식처럼 남게 되었다.

제일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했던 송성문 씨는 1976년 《성문종합영

어》를 출간했는데 당시 학생들에게는 이 책을 몇 번 독파했느냐가 영어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수학의 정석》은 1966년 첫 출간되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었지만 1970년대 들어서는 '바이블'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저자인 홍성대 씨는 26살에 집필한 이 책으로 다종다양한 수학참고서가 난무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요즘도 특목고 전문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수준을 상담할 때 《수학의 정석》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이 시기에 등장한 또 다른 수학참고서로는 1972년 출간된 최용준 씨의 《해법수학》이 있는데, 이 책 역시 오늘날까지 수학참고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교육열의 과잉이 참고서 시장의 확장으로, 1980년대

1980년대는 '8학군병'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강남이 교육특구로 자리 잡았다. 학군배정 기준이 거주지 중심으로 바뀌자 강남 지역에 8학군이 탄생했는데 이와 함께 이 지역에 몰린 명문고를 쫓아 이동하는 '8학군병'이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평준화 이후에도 학교간의 우열차가 나타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교육열의 과잉은 참고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1970년대에 비해 다양한 참고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어는 <성문영어 시리즈>와 함께 영어 참고서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장재진 씨의 <만투맨 시리즈>가 등장해 크게 인기를 끌었다. 당시 학생들에게는 '성문'으로 공부할 것이냐, '만투맨'으로 공부할 것이냐가 큰 고민거리였다. 성문이 핵심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만투맨은

상세한 설명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나뉘었다.

수학은 여전히 《수학의 정석》 신화가 계속되었는데 공통수학, 수학1, 수학2, 기본편, 실력편 등 총 6종류로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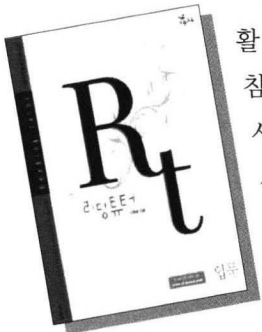


화'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국어 참고서의 절대 강자도 등장했는데 1980~90년대 학원가의 명강사로 이름을 날린 서한샘 씨의 《한샘국어》가 바로 그것이다. 서한샘 씨는 1980년대말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던 교육방송 과외강의를 통해 '밑줄 짹~', '돼지꼬리 땡아~'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한샘국어》는 당시 고만고만했던 국어 참고서 시장에서 '국어 기본기를 다져주는 전문 참고서'라는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수능시험이 가져온 참고서 시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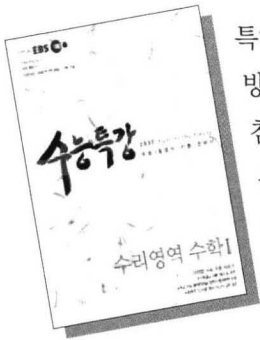
1990년대는 입시제도에 큰 지각변동이 있었다. 교과과정이 바뀐 것 외에도 대입체제가 학력고사에서 수학능력평가로 변하면서 대입 본고사가 폐지되었다. 수능시험 문제가 기존의 '암기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많은 참고서들이 '통합적 사고력'을 갖추기 위해 변신을 꾀하면서 참고서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몰려왔다. 참고서 시장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책들의 위세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영어는 문법 위주의 참고서 대신 생활 영어와 독해를 다루는 문제 위주의 참고서들이 인기를 끌었다. 능률영어사의 창업주 이찬승 씨는 <리딩튜터 시리즈>란 독해교재를 출간했는데 이 책은 1990년대 학생들에게는 수능 영어를 위한 필수적인 참고서가 되었다. 또한 시험에 출제되는 빈

도수로 영단어를 편집한 안용덕 씨의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도 수능이 만든 베스트셀러 참고서였다.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수능의 영향을 적게 받은 편이었다. 그래도 새로운 참고서들은 많이 등장했는데



특히, 이홍석 씨의 《개념원리》와 EBS 방송교재인 《EBS 수학》은 기존 수학 참고서에 부족했던 설명이나 심화된 문제를 보강하는 식으로 변별력을 획득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자습서〉, 두산동아의 〈하이탑〉, 좋은책의 〈신사고 수능〉, EBS 교육방송의 〈EBS 교재〉, 진학사의 〈블랙박스〉처럼 브랜드화된 시리즈가 전과목을 망라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들 브랜드는 대형 출판사와 교육 전문방송이라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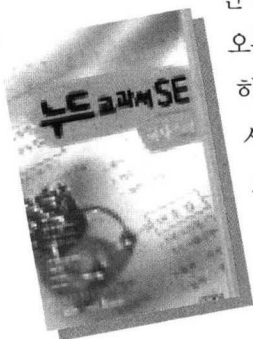
2004년에는 교육부가 “EBS 강의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한다”고 발표하면서 EBS가 발간하는 참고서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참고서 출판 관계자들은 전문출판사도 아닌 EBS가 1,000억원대 규모의 참고서 시장을 독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EBS 교육방송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학습 도구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EBS가 인터넷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는 인터넷 강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이를 통해 컴퓨터는 학습 보조 도구에서 학습의 열쇠를 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고정 관념을 뒤엎는 참고서들이 줄줄이 출간, 2000년대

2000년대는 참고서 시장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다. 교과과정이 종합적인 사고력과 응용력 외에도 전 과목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요구하는 쪽으로 변하면서 교육 패러다임이 확장된 것이다. 기존의 참고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했지만, ‘참고서=지루한 책’이라는 고정 관념을 뒤엎는 참고서들이 줄줄이 출간되면서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선택을 위한 고민의 시간도 길어지게 되었다.

2002년부터 교보문고가 집계한 ‘연간 학습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고전의 반열에 오른 《한샘국어》 《성문영어》 《맨투맨》 《수학의 정석》 《해법수학》 등은 여전히 상위 순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순위가 하락하는 반면 매년 새롭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오는 참고서들이 1~2종씩 존재한다. 특히 스타 강사를 등에 업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출간하는 책들이 매년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투스(이투스 교과서)와 메가스터디의 〈1000제 시리즈〉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육계 전반에 불어 닥친 ‘e러닝’ 바람

인터넷 강좌의 시대가 열리면서 유명 참고서 출판사들이 ‘e러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와 연계되어야 참고서의 판매율도 더욱 높아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두산, 능률영어사, 개념원리, 비유와 상징 등의 출판사가 독자적으로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몇몇 참고서 출판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교과서 자체의 온라인화를 추구하는 교육계 전반에 불어 닥친 현상이다. 굳이 ‘e러닝’ 사업을 하는 출판사가 아니라도 이제 대부분의 참고서는 그 안에 내용이 담긴 CD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영어교과서와 함께 CD를 보급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2008년부터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단말기를 이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강좌의 틈바구니 속에서 참고서 시장이 쌓아온 60년의 내공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발휘될지 기대해 본다. **한지연**

취재 이주연 기자